

# ‘1대학-1사찰’ 결연 맺고 공동사업도

## 21일, 전법도량·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지부 협력 조인식 가져

조계종 전법도량(의장 심산, 부산 흥법사 주지)이 침체된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전법도량은 9월 21일 혜원정사 만불전에서 ‘전법도량-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류용선, 이하 대불련) 협력 조인식’을 갖고, 불법 흥포와 대학생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의장 심산 스님은 “우리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포교하느냐에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어린이는 동년, 청소년은 파라미타가 많고 있지만, 대불련은 오직 동년회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정도였다”며 “전법도량과 대불련이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협력, 후원에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1대학-1사찰’ 조인으로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1개 대학교와 전법도량의 1개 사찰이 각각 결연을



9월 21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열린 전법도량-대불련 부산지부 협력 조인식. (좌로부터) 혜원정사 주지 원해 스님, 류용선 대불련부산지부장, 전법도량 의장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대량명사 주지 목중 스님.

맺고, 대학생 불자들의 불법 흥포와 불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며, 상호협력 가능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시켜 나가게 된다.

이에 자매결연은 ‘부산대와 흥법사(주지 심산)’, ‘부경대와 대량명사(주지 목중)’, ‘동아대와 미타선원(주지 하림)’, ‘동의대와 혜원정사(주지 원해)’, ‘부산외국어대와 금전선원(홍

무 정운)’, ‘동명대와 동명불원(주지 정산)’ 등 근거리 중심으로 맺어졌다. 류용선(부경대3)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그간 침체된 대불련에 전법도량 스님들의 관심과 자비로, 더 많이 불법을 배우고 스님들을 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1969년 창립 이후 1970-80년대에는 20여개 대학에서 2000여명에 이르는 불자 대학생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 6개 대학에서 정확한 회원수를 추산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됐다. 홍상명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우리 불교가 요즘의 대학생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전법도량과의 협력 조인이 대불련 부산지부의 저변 확대와 재도약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개채불사 한걸음

### 21일 회향법회

지난 8월 29일 불교문화콘텐츠연구회 설립계획을 발표한 동명불원(주지 정산)이 이번에는 ‘사천왕상 개채불사’로 불교문화 중심도량으로 거듭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명불원은 9월 21일 오전 11시 대웅전 및 사천왕문 일대에서 ‘사천왕상 개채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된 이번 개채불사는 오랜 세월 비와 바람, 햇볕 등으로 본래의 색을 잃었던 동방 지극천왕, 서방 광목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 등 사천왕상의 채색을 재정비했다.

주지 정산 스님은 “이번 개채 불사는 단순히 본래 색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감탁한 색깔을 현대적인 색채로 바라보기 편안하게 재구성했다”며 “신도분들 모두가 이러한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박지원 기자

## “눈높이 포교로 친근한 불교 전할 것”



###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정각원장 화랑 스님

“9월 10일에 임명장을 받고, 보름 만에 취임식을 치르며, 또 원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파악까지 모두 하러나가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다가도, 학생들에게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돼 빙그레 웃곤 합니다.”

9월 25일 신라 천년고도에 자리한 경주 동국대 정각원장으로 화랑 스님(김해 은하사 주지)이 취임했다. 어느 날 갑자기 정각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게 아니다.

약 10년 전부터 동국대 학생들이 졸업 후 2학기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 <자아와 명상>을 정각원에서 지도해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합대학교이지만 화랑 스님이 강의하는 이 과목과 불교는 당초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매 학기 설문조사를 하는데 스스로 불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고, 출석률이 낮은 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포교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만, 비불자인 학생들이 매주 법당을 찾아와 스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법문을 통해 불교의 좋은 점들을 듣게 되니까, 이게 바로 포교지요.”

그래서 화랑 스님은 정각원장 임기동안 불교가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인 ‘취업’ 때문에 종교를 등한시 하는 세태를 헤쳐 갈 방편이기도 하다.

“돈과 도덕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취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돈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학은 참사람을 기르는 곳으로 철학과 문화, 인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새롭게 해줄 불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님의 마음을 알리 없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일부 학생들은 화랑 스님이 화점에서

만드는 자비롭지 않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아무리 시현성적이 훌륭해도 3번 이상 결석은 학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화랑 스님 수업의 제1원칙이기 때문이다.

“정각원까지 찾아와 불법을 들어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주고 싶지만, 자유로운 가운데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니까요. 학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저비롭고 좋은지 전하는 것. 그게 제가 이곳 정각원에 있는 이유 아닐까요?”

화랑 스님이 정각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원장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학생들은 복도를 오가며 스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한가롭다면 차담을 나눌 수도 있다. 이제 화랑 스님은 ‘스님’이라는 무거운 근엄함을 벗고, 학생들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 ‘진짜 불교’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박지원 기자

화랑 스님은 1974년 범어사로 출가해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선학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안양 용화사 유지원장, 범어사 포교·교무국장, 미국 시카고 불타사 주지, 대한불교신문 편집국장,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등을 역임하고, 현재 김해 은하사 주지, 동국대 선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던 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으로 취임했다.

## “한국불교 만나러 왔어요”

### 중국체협단 34인, 7박8일간수행문화 체험

오후 4시 30분 저녁공양을 1시간여 앞둔 가장 출중한 시간, 통도사 템플스테이전용관에서 중국 스님들의 발우공양법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중국 스님들이 한국식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

야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중국 수행체협단의 첫 한국식 발우공양이 끝났다.

한국의 불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모인

숙달된 조교의 시범과 함께 통도사 출원 진목 스님이 우리말로 설명하며 통역사는 한 마디라도 놓칠새라 꼼꼼히 중국어로 전달한다.

중국에서 온 달관 스님은 “발우공양법이 중국의 큰 사찰에서만 명맥을 이어올 뿐 대부분 간소화하고 있고, 이렇게 대중선원에서 모여 생활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긴장한 기세가 역력했다. 공양을 마친 후 발우를 보자기에 써는 방법은 배우지 않기로 했다. 한국의 스님들도 길게는 일주일씩 연습해야 터득할 수 있는 고난도 과정이라고 진목 스님이 설명하자, 긴장을 풀고 그제

중국불교 수행체협단이 통도사에 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9월 18-25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제6차 중국불교 수행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수행체협단은 중국 말사 주지급 스님 22명,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 12명 등 34명이다.

18일 오후 6시 금강계단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사찰의 의례 및 발우공양법, 한중불교 비교 토론 등 다채로운 한국불교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지원 기자

## 제70회 석암장학회

### 19일 장학금전달식

침체된 어린이포교를 이끌어갈 손소영 양(동국대 불교아동학과3)과 이슬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권현범 군(동국대 한의학과3)등 불교 인재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대한불교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는 제70회 장학금전달식을 9월 19일 오전 11시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故석암 스님의 유훈을 계승해 1971년부터 불우한 가정형편에도 학업성적이 훌륭한 불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故 석암 스님 육성법문, 이사장 정련 스님의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명호 스님 외 학인3명, 박상준(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 전공) 외 재가학생 9명 등 동국대 재학생 14명이다. 박지원 기자

박지원 기자

## 불법으로 바다 지키다

### 울산해양경찰서 법당 개원, 오심 스님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 이하 해경)는 전용부두 내 법당을 개원하고, 오심 스님(울산 월봉사 주지)을 경승실장으로 위촉했다.

9월 23일 오후 2시 울산해양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당 개원법회에서 경승실장으로 위촉된 오심 스님은 “해양경찰 범우들의 신심을 일으키고 바른 불법을 전해,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력으로 울산 앞바다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원 법회는 경과보고, 김창권 서장에 감사패 전달, 경승 위촉패 전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법회에 참석한 500여 사부대중이 함께 합창 ‘1009함’에 승선해 해상 안전



8월 23일 울산해양경찰서 법당 개원법회서 오심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김창권 해양경찰서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을 기원하고, 법당 앞에서 테이프 커팅 등을 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향후 해경 범우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바다갯길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직원, 전경 가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3년 전 오심 스님을 경승으로 위촉해 해양경찰 범우들을 위한 법회를 마련해오던 중 법당 겸 경승실의 필요성을 느껴, 한달여 준비해 경찰서 전용부두에 7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하고, 범우들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박지원 기자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년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규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3절 (30.5x63cm) | 대-국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차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